



카자흐스탄, 꾸준히 지속되는 식품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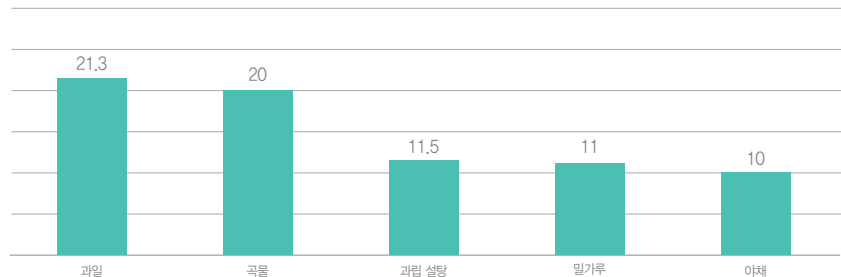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카자흐스탄의 식품 가격이 2020년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카자흐스탄의 무역 통합부 장관 바흐트 술탄로프(Bakhyt Sultanov)는 2020년 9월에 열린 정부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품들의 가격이 약 4.4% 상승했다.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식품은 각종 과일, 메밀, 설탕, 당근, 감자, 버터 및 유제품 그리고 해바라기씨유다”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과일은 21.3%, 곡물은 20%, 과일 설탕은 11.5%, 밀가루는 11%, 야채는 10% 가량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식품의 가격은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주된 이유로는 검역 조치와 관련된 식품 수량의 변화, 물류 및 상품 운송의 변화, 계절적인 요인, 수입량 감소 및 재배 면적의 감소로 인한 원자재의 부족 등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가 지방 행정청인 아키마트(акиматы пополняют)는 최근 지속적인 식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2만 7,700톤의 식량을 확보해 시장에 회복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 지역에 약 142억 카자흐스탄 텡게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 카자흐스탄 주요 식품 물가 상승률 】

(단위: %)



출처 : forbes.kz/process/economy/tsifrovaya_metka_tenevoy_ekonomike/

출처 : <https://rus.azattyq-ruhy.kz/economics/12915-na-skolko-podorozhali-v-kazakhstane-produkty>

[2015년/2020년 주요 식품 가격비교표]

(단위 : 텡게(KZT))

식품품목	2015년 12월	2020년 8월	상승률
식빵	103	152	47.6%
쌀	274	376	37.2%
메밀	285	403	41.4%
소고기(가슴살)	1,177	1,909	62.2%
버터	1,449	2,612	80.3%
해바라기 오일	393	447	13.7%
계란 한판(10개)	245	282	15.1%
사과(신선과일)	322	536	66.5%

출처 : 카자흐스탄 국민 경제부 통계 위원회

5년 만에 식량 가격이 45% 상승한 카자흐스탄, 물가 상승 품목 및 비율

카자흐스탄 국민 경제부 통계 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카자흐스탄의 식품 가격은 2015년 12월 대비 4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1급 밀가루로 만든 빵이 평균적으로 약 105텡게였다면 올해 8월에는 152텡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역시도 킬로그램당 1,177 텡게에서 1,909 텡게로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 동안의 식품 인플레이션 경향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대비 2020년 8월의 식품 가격은 1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카자흐스탄 당국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품들에 대해 고정 가격을 도입하고 안정화 기금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 생산 비용의 상승과 도시화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카자흐스탄 의회 마질리스(мажилисе)의 블라디미르 보즈코(Vladimir Bozhko) 부회장은 식품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첫 번째로 농업 생산비용의 상승, 두 번째로는 도시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업 장비, 전기, 디젤 연료, 시구 및 관개용수, 비료 등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수입산 제품들은 가격이 매우 비싸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도시화로 인해 농촌의 인력들이 부족해지면서 농업 관련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육류의 가격 상승은 해외로의 대규모 육류 수출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농무부는 육류 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를 “가축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결과적으로 “원자재 부족이 발생하여 투기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 농업부에 따르면 작년(2019) 15만 5천 마리의 소와 26만 6천 마리의 양이 해외로 수출되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암컷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한 수출량도 문제이지만 꾸준한 육류 생산에 필요한 암컷의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카자흐스탄농림부는 약 6개월 간 해외로의 가축 수출을 금지해오고 있다. 또한, 닭과 계란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가금류 사료 가격의 상승과 닭의 계란 생산 감소, 그리고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저개발, 식품 수급에 대한 효과적 예측 및 지역별 식품 수출입 모니터링의 부재, 농업 부문 생산 시설의 비합리적인 할당,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의 부족, 농공 단지 부문의 가격 정책과 관련 정부 기관의 메커니즘 및 실질적 조치의 실효성 부재, 신뢰도가 낮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분석의 불확실성 및 정보 왜곡 발생으로 인한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효과적 통화 정책 추진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인 식품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식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카자흐스탄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의 프로세스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말까지 카자흐스탄 규제 당국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8%로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카자흐스탄 정부, 상승하는 식품 가격을 잡기 위한 방안 발표

카자흐스탄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부 식품 품목에 대하여 가격 상한을 도입했다. 1등급 밀가루와 이로 만든 빵, 메밀, 쌀, 쇠고기(뼈가 있는 건갑골 부분), 계란, 해바라기 씨유, 소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3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메밀, 설탕, 감자, 양파, 마늘, 해바라기씨유, 메밀 등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으며, 특정 물품들에 대한 월별 쿼터를 도입했다. 또한, 3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주요 식품들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을 12%에서 8%로 낮췄다. 카자흐스탄 무역 통합부 장관인 바키토티 토티(Bakhyt Sultantov)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안정화 기금은 약 2만 7,000톤의 식품을 확보하고 2만 1,600톤의 공급을 위한 선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아키마트는 소매 체인에 대한 신용 제공을 의미하는 소위 '턴어라운드 계획'을 구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는 특정 유형의 제품에 대한 가격을 통제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142억 텡게가 지방 예산에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물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카자흐스탄이 현재 지나치게 농산물에 있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보조금 및 국가 지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전문화 지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수입을 줄이고 대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농산물의 수출 지원을 위한 관세 및 규제조치 채택에 관한 농업부와 경제개발 통산부 간 상호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식량 생산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농업 기업을 만들어야 하며 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리인은 직접 공급망 형성을 통해 기존 중개자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보호 가격을 설정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Key Point

오랜 기간 카자흐스탄의 식품 물가 및 여타 다른 산업들의 인플레이션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식품에 있어서 물가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정부의 물가 안정화 방안 강구가 시급해 보인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의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장기간 지속되는 물가의 상승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부 품목 수출제한, 월별 쿼터 도입, 부가가치세 인하 등 정부 차원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가뭄 및 도시화 등의 불가항력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언급된 원인들은 대체로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이며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고 방임주의로 간다면 식품뿐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변동성은 경제에서 물가 수준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외부 경제 요인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메커니즘을 반영한다. 총 공급 감소와 관련된 비용 인플레이션은 국내 총생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사업 활동을 감소시키며 경제 성장률을 늦춘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외부 경제적 요인에 민감한 국가로 주로 세계 경제 상황, 주로 에너지 자원 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세계 가격의 하락은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평가 절하를 수반하고 수입품 및 생산 요소의 상대적인 상승을 유발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구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생산 과정에서 수입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둔감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가로부터의 자본 도피, 더 큰 인플레이션 및 투자 활동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원자재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앞서 살펴본 육류 수출사례와 같이 외국으로의 공급 과다로 지역 내 공급 부족을 방지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 역시 식품 시장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주요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조치]

구분	월별 조치	비고(대상 품목)
3월~5월	수출금지, 월별쿼터 도입	메밀, 설탕, 감자, 양파, 마늘, 해바라기씨유
3월~9월	부가가치 세율 인하(12%→8%)	주요 식품들

출처: <https://kursiv.kz/news/ekonomika/2020-09/v-kazakhstane-sdelali-prognoz-po-rostu-cen-na-produkty>

출처 : ❶ <https://liter.kz/pochemu-v-kazakhstane-podorozhali-produkty-pitaniya-rasskazal-sultanov/> ❷ <https://rus.azattyq-ruhy.kz/economics/12915-na-skolko-podorozhali-v-kazakhstane-produkty> ❸ <https://24.kz/ru/news/social/item/432694-kak-ob-yasnyayut-podorozhanie-produktov-na-almatinskikh-prilavkakh> ❹ <https://liter.kz/czeny-na-produkty-vyrosl-na-45-za-pyat-let-v-kazakhstane/> ❺ <https://mail.kz/ru/news/kz-news/ozvucheny-osnovnye-prichiny-rosta-cen-na-produkty> ❻ <http://www.matritca.kz/news/68953-pochemu-rastut-ceny-na-produkty.html> ❼ https://www.inform.kz/ru/povyshenie-cen-na-produkty-ob-yasnili-v-semee_a3712513 ❽ <https://rus.azattyq-ruhy.kz/economics/14417-bystryi-rost-tsen-na-produkty-otmetili-88-kazakhstantsev> ❾ <https://kursiv.kz/news/ekonomika/2020-09/v-kazakhstane-sdelali-prognoz-po-rostu-cen-na-produkty> ❿ https://online.zakon.kz/Document/?doc_id=31303358#pos=3;-55